



윤도원 선수,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전북현대모터스 윤도원 선수로부터 발전기금 5백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윤도원 선수를 대신해 부모님인 장은정 어머니님과 박진배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도원 선수는 전주대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2021 U리그 왕중왕전 우승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1, 2학년 축구대회 우승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큰 키를 이용한 헤딩능력 등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로 3학년 재학 중 전북현대모터스에 입단해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대 축구부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윤도원 선수는 학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선수라며 '앞으로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후배 선수들의 양성을 위해 학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축구부는 2023년 대학 축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4위에 진출 2021년 U리그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 탈환에 도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들이 16일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회원들이 제27회 무주년빛불축제에서 "음식 먹거리 부스" 운영과 바른 먹거리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쌀 조청"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먹거리 부스 운영과 우리 쌀 조청 판매로 반딧불축제 성공에 기여하고 또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설 수 있어 뿌듯했는데 그 수익금도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돼 행복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개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생활개선회는 6개 읍면의 44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들은 농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리더 육성을 비롯해 사가지 쓰레기 줍기와 꽃 심기, 불우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제일사회복지재단, 청소년 위한 장학금 기부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대표 최재식)은 지난 15일 저소득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장학금 선발 기준에 맞추어 초등학교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교생 4명으로 16명을 선발하여 500만 원(초등학교생 25만 원/중학생 35만 원/고등학교생 40만 원)장학금을 전달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따스한 등불 역할을 지속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전달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 지원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번째를 맞이하는 김제제일복지재단 장학사업은 매년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고향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

신동섭 나래식품 회장, 식품외식 산업발전 유공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임실군 관촌면에 소재한 (주)나래식품 신동섭(사진)회장이 식품외식 산업발전 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포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IT센터에서 열린 2023대한민국 식품대전 에서 신 회장이 농식품부의 올해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신동섭 회장은 지난 93년 산동식품을 설립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냉동민두의 대중화(대량생산)를 선도하며 신시장을 개척해 연매출

330억원을 올리는 임실군의 대표적인 만두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냉동민두를 해외시장까지 개척하며 직접·간접 수출로 약20억원을 올리고 있고국산원료사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 회장은“고향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왔다”면서“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직원들 몰론 임실 농가들의 땀의 결실 이니만큼 계약재배 확대와 우리 농산물 사용 등 임실군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으로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승우 도의원, 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문승우 의원은 지난 5월에 대한체육회 제41대 후반기 안전위원회(위원장 박종성)에 위촉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안전경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지난 7월에 각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각 종목단체에 배포된 대한체육회 주관·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하여도 보고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거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국내종합대회 등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완료

남원시 민원과(과장 권혜정)는 등산로, 산악 등 재난·사고 위험지역에 국가지점번호 22개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기존 국가지점번호판의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해 76개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3개소의 보수 정비를 포함한 60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가로, 세로 10m 격자형으로 나누고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한글 2글자

와 숫자 8글자를 조합해 10자리로 표기된 것으로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 신속 정확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제4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4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주관 무주청소년수련관, 후원 무주군, (재)생백합청소년육성회)가 16일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연은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1년의 활동을 완성하고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즈(Jazz Little Brown Jug Fiesta Tropical)를 비롯한 영화(겨울왕국 및 알라딘 OST)와 클래식(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나팔수의 휴일), 뮤지컬(맘미아 및 팬텀오페라) 등 다양한 음악이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자신감을 열고 지역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었다"라며 "음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무대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무주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으로 선정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되면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으며, 관내 9~15세 취약계층 청소년 60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도매주 일·목요일 방과 후 3시간)는 음악감독을 비롯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럼본, 타악기 등 악기별 강사 12명이 맡고 있으며 이날 공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나무딸감 전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 이하 위원회)는 16일 흙흙 어른신 2가구에 딸감나눔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9년 나무딸감을 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5년째 전달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전달식은 해당 가구에 3분 이상의 딸감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딸감을 나르기 쉽지 않아 하나하나 손으로 나르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조수행 위원장은 "작은 관심과 사랑이 완전한 온기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니 저절로 힘이 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도개비동굴김치, 계남면에 김장김치 기부

장수군에 위치하고 있는 도개비동굴김치는 김장철을 맞아 15일 계남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 200kg를 기부했다.

도개비김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김장철에 김치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나눔을 통해 후원받은 김치는 김장이 어려운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개비김치 관계자는 "추워지는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나눔을 통해 모두가 마음만큼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계남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사회복지직 진사행연,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은 지난 15일 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진사행연(회장 김갑기)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갑기 회장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인재 양성이 곧 진안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진안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빌선에서 저소득층을 돕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숭선수행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많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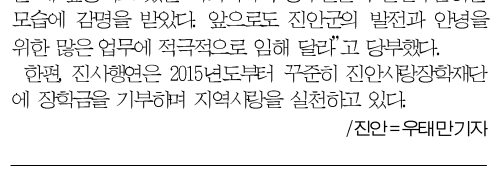
한편 진사행연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천동농협 등,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여성조직 농가주부모임(회장 강선녀)과 함께 지난 15일 구천동농협 주차장에서 농가주부 회원과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농가주부회원들은 정성들여 만든 김치를 원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겨울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번안면 자율방범대, 화재 피해 가구에 위로금 전달

장수군 번안면 자율방범대(대장 서종현)가 화재 피해로 인해 상심에 젖어 있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화재 피해 가구에 위로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번안면 자율방범대는 "조금이라도 피해자께 위안이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재기했으면 하는 대원들의 바람을 모아 이번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주영 번안면장은 "갑작스럽게 화재 피해를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한 뜻깊은 나눔 실천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